

요시쓰네(義經) 최후서사의 시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 할복과 에조치 도해(蝦夷地渡海)를 중심으로*

박은희 _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중세 사료 속 요시쓰네 최후
- III. 요시쓰네의 할복 - 『기케이키(義經記)』를 중심으로
- IV. 요시쓰네 생존설과 이국(異國) - 에조치(蝦夷地)에서 대륙으로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헤이안 말기 무장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 최후 관련 서사의 특징을 할복설과 에조치(蝦夷地) 도해설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동시대 사료는 고로모가와(衣河) 전투에서의 자살만을 간단히 전하고 있는 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시쓰네의 죽음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 변용되었다. 요시쓰네 일대기에 해당하는 『기케이키(義經記)』의 경우 남북조 이후 유행한 할복이라는 자살 양식을 차용하여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으로 승화시키고, 항전이나 도망이 아닌 자살을 선택한 이유로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근세에 들어 고로모가와 전투 이후 요시쓰네가 생존했다는 생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요시쓰네가 에조치(蝦夷地), 즉 홋카이도로 건너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284)

가 아이누인들의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국학자들의 언설을 통해 확산되었다. 에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아이누인들의 동화정책이 강화될수록 에조치에서의 요시쓰네의 상징적 의미는 더욱 커졌다. 요시쓰네 생존지는 홋카이도에서 중국대륙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요시쓰네 징기스칸설이 탄생하는데, 이들 생존설은 명백한 허구이지만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어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요시쓰네, 할복, 에조치, 아이누, 징기스칸

1. 서론

2005년 방영된 NHK 대하드라마 《요시쓰네》는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이다.¹⁾ 주인공 요시쓰네 역을 맡은 다키자와 히데아키(滝沢秀明)는 당시 대하드라마 사상 최연소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비주얼로 강하고 아름다운 요시쓰네의 이미지를 연기해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 강인함과 결단력은 무사로서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기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용모는 헤이안(平安) 귀공자로서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아름답고 강한 요시쓰네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는 ‘호간비이키(判官鬚)’라는 단어로 상징되듯 그 역사가 길다. 요시쓰네에 대한 각종 일화와 전설은 노(能), 고와카마이(幸若舞), 조루리(浄瑠璃), 가부키(歌舞伎)와 같은 중세, 근세 공연은 물론 각종 산문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요시쓰네를 주인공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호간모노(判官物)라고 하는데, 호간모노는 중근세를 통해 대량으로 쏟아졌으며, 작품 속 요시쓰네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 일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 대하드라마 《요시쓰네》의 평균 시청률은 19.5%, 최고 시청률은 26.9%이다.

요시쓰네에게는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스토리²⁾가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그 중에서 요시쓰네의 마지막, 즉 최후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후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앞서 언급한 대하드라마 《요시쓰네》의 자살과 생존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중적 결말 때문이다. 드라마 속 요시쓰네는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러 패색이 짙어지자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에 칼을 맨다. 자살을 상징하는 장면이 이어 요시쓰네의 영혼으로 상징되는 하얀 말이 지붕을 뚫고 하늘을 향해 달려 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자살을 언급하는 장면 이후 에필로그에서 갑자기 지인들의 입을 통해 요시쓰네의 생존을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가라스마루를 비롯한 요시쓰네 지인들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우쓰보에게 요시쓰네가 고로모가와(衣川) 전투에서 죽지 않았으며 구라마(鞍馬)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리고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구라마 산을 뛰어다니는 요시쓰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난다.³⁾ 이와 같은 요시쓰네 최후를 둘러싼 자살과 생존이라는 서로 다른 결말의 공존은 드라마 《요시쓰네》의 독창이라기보다는 이전 호간모노의 서로 다른 결말을 종합적으로 흡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요시쓰네 최후에 관한 할복설, 생존설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이야기를 단순한 공상이나 허구로 치부하는 대신 생과 사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요시쓰네 최후 관련 서사의 확장성과 그 원동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시쓰네에 관한 선행연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최후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요시쓰

2) 요시쓰네 관련 대표적인 일화로는 유년시절의 역경과 성장, 무예 습득담, 신출귀몰한 전투담, 이복형 요리토모(頼朝)와의 불화, 시즈카고젠(静御前)과의 사랑, 벤케이(弁慶)를 비롯한 일당백 부하들과의 끈끈한 정, 그리고 할복으로 상징되는 최후와 생존설 등을 들 수 있다.

3) 드라마 속 마지막 나레이션은 이와 같은 생존설에 대해 요시쓰네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도의 마음, 애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네의 할복을 명예를 중시하는 무사들의 전형적인 자살로 규정한 모리스 팅게(モリス・パンゲ)의 논문⁴⁾, 『기케이키(義経記)』가 창작될 당시 무사의 인물 평가 기준에 죽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한 야스마쓰 다쿠마(安松拓真)의 논문⁵⁾, 에조치(蝦夷地)⁶⁾ 도해설의 전개과정을 자세히 언급한 기쿠치 이사오(菊池勇夫)의 논문⁷⁾, 징기스칸 설과 에조치 도해설을 중심으로 한 위서논쟁을 다룬 김시덕의 논문⁸⁾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간주되었던 요시쓰네의 할복과 에조치 도해를 하나의 관점, 즉 영웅 요시쓰네의 최후 서사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할복설과 생존설에는 각기 다른 시대의 시대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성의 두 방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요시쓰네 최후 서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변화된 서사 속에 숨겨진 시대적 욕망은 무엇인지, 나아가 요시쓰네에 대한 일본인의 무조건적인 애정, 열광의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모리스·판게, 『自死の日本史』, 講談社, 2011, p.220

5) 安松拓真, 「『義経記』における義経の自害について」, 『面』, 8号, 2015, p.12

6) 근세 마쓰마에 번(松前藩)의 일부 화인지(和人地)를 제외한 홋카이도, 사할린(樺太島), 치시마(千島) 열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의 총칭. 대부분 아이누 거주지였다. 1869년 홋카이도 명칭이 정해진 뒤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7) 菊池勇夫, 「義経『蝦夷征伐』物語の生誕と機能—義経入夷伝説批判—」, 『史苑』, 42卷, 1982, pp. 85-101

8) 김시덕, 「위서 비판에서 위서 연구로—일본 위서의 검토 및 한국 위서와의 비교」, 『역사비평』, 118권, 역사문제연구소, 2017, pp. 98-123

II. 중세 사료 속 요시쓰네 최후

요시쓰네 최후에 관한 동시대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시쓰네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 기록 속 요시쓰네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겐페이(源平)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복형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와의 불화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다 히라이즈미(平泉)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이나 죽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알려진 전투에서의 활약상 역시 『헤이케모노가타리』 『기케이키』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요시쓰네 관련 일화는 전체적으로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시쓰네 관련 사료의 부재는 창작자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호간모노 속 요시쓰네의 마지막 역시 시대와 작품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번 절에는 호간모노 속 확장된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헤이안 말, 중세 사료를 통해 사료 속 요시쓰네 최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구칸쇼(愚管抄)』

ツイニミチノクノ康衡ガモトヘ逃トヲリテ行ニケル。ヲソロシキ事ナリト聞ヘシカドモ、ヤスヒラウチテコノ由頼朝ガリ言ケルヲバ、「ソレニモヨラジ、ワロキコトシタリ」トゾカノ国ニモイヒケル⁹⁾

(마침내 요시쓰네는 미치노쿠에 있는 야스히라의 거처로 도망쳤다. 사람들은 요시쓰네의 신출귀몰에 혀를 내둘렀으나 결국 요시쓰네는 야스히라의 칼에 쓰러졌고 야스히라는 그 사실을 요리토모에게 보고하였다. 미치노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타까운 짓을 했군.”)

9) 박은희 외 역, 『구칸쇼』, 세창출판사, 2012, p.361

② 『교쿠요(玉葉)』 文治5年 5月29日

今日、能保朝臣告げ送りて言ふ、九郎、泰衡のために誅滅せられをはんぬと云々。天下の喜び何事かこれに如かんや。実に神仏の助けなり。そもそもまた頼朝卿の運なり。言語の及ぶところに非ず。¹⁰⁾

(오늘 요시아스 아손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구로가 야스히라에 의해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운운. 천하의 기쁨, 무엇이 이와 같을까. 참으로 신불의 가호이며 무릇 요리토모 경의 운이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③ 『하쿠렌쇼(百鍊抄)』 文治5年 6月1日

六月一日、己丑義顕(年三十一)去んぬる四月晦日、奥州において追討の由言上す。¹¹⁾

(6월 1일 을축일 요시아키(31세)가 지난 4월 말일에 오슈에서 토벌되었음을 아뢰었다.)

13세기 초에 쓰인 『구칸쇼』와 『교쿠요』는 헤이안 말, 중세 초를 연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첫 번째 사료이다.¹²⁾ 귀족들의 일기를 토대로 가마쿠라 후기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쿠렌쇼』 역시 막부 쪽 사료인 『아즈마카가미』와 더불어 중세 연구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사료이다. 위의 세 자료는 모두 히라이즈미에서의 요시쓰네의 죽음을 전하고 있다. 구로, 요시아키는 모두 요시쓰네의 다른 이름이며, 오슈, 미치노쿠 역시 같은 곳, 히라이즈미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세 자료를 종합해보면 요시쓰네는 히라이즈미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야스히라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고 정리할 수

10) 渡辺保, 『源義経』, 吉川弘文館, 2000, p.227

11) 渡辺保(2000), p.227

12) 가네자네의 일기인 『교쿠요(玉葉)』는 1164년에서 1200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구칸쇼』의 성립은 1220년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가네자네와 지엔은 형제이며 상관가 출신이었기에 당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있겠다. 『구칸쇼』의 저자 지엔(慈円)은 여기에 덧붙여 히라이즈미 사람들의 생각, 즉 요시쓰네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야스히라의 처사가 심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반면 『교쿠요』의 경우 후지와라노 가네자네(藤原兼実)의 정치적 입장, 즉 자신의 친막부적 성격을 드러내며 요시쓰네의 죽음을 천하의 기쁨, 신불의 가호라고 칭하고 요리토모의 운을 상찬하고 있다. 물론 조정의 입장을 대표하는 가네자네의 의견과 『구칸쇼』에 실린 히라이즈미 주민의 동정적인 시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들은 모두 히라이즈미에서의 요시쓰네의 최후를 언급하고 있으며 요시쓰네 죽음에 있어 야스히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는 『아즈마카가미』의 해당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아즈마카가미(吾妻鏡)』 文治 5年 閏4月30日

陸奥において、泰衡源子州を襲ふ。これ且つは勅定に任せ、且つは二品の仰せによってなり。子州は民部少輔基成朝臣の衣河の館にあり。泰衡は兵数百騎を従へて、その所に馳せ至りて合す。子州は持仏堂に入り、まづ妻(二十二歳)、子(女子四歳)を害し、次いで自殺すと云々。¹³⁾

(무쓰에서 야스히라가 미나모토노 요슈를 습격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요리토모의 명에 의한 것이다. 요슈는 민부소포 모토나리 아손의 고로모가와 저택에 있었다. 야스히라는 병사 수백 기를 데리고 그곳을 습격하여 전투를 벌였다. 요슈는 지불당에 들어가 우선 부인(22세)와 아이(여자 아이, 4세)를 죽이고, 이어서 자살했다고 한다.)

② 『아즈마카가미』 文治 5年 6月13日

泰衡の使者新田冠者高平の首を腰越の浦に持参し、事の由を言上す。よって実検を加へんために、和田太郎義盛梶原平三景時等をかの所に遣わす。おの

13) 龍肅 訳註, 『吾妻鏡(二)』, 岩波書店, 1997, p.189

おのの甲冑の郎従二十騎を相具す。件の首は黒漆の櫃に納め、美酒に浸し、高平の僕従二人これを荷担す。¹⁴⁾

(야스히라가 보낸 시종 닷다 관자 다카히라는 고시고에 포구로 요시쓰네의 목을 들고 와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와다노 타로 요시모리, 가지와라노 헤이산 가게토키 등을 그곳으로 파견했다. 각기 갑옷을 입은 부하 20기를 데리고 왔다. 수급은 검은 옷칠을 한 상자에 넣고 술을 넣어 담근 뒤 다카히라의 부하 두 명이 메고 왔다.)

『아즈마카가미』의 서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교토 귀족들의 사료에 비해 훨씬 자세하며 정보량이 많다. 우선 첫 번째 인용문을 살펴보자. 요시쓰네가 히라이즈미에서 야스히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다. 『아즈마카가미』에는 여기에 두 가지 내용, 즉 야스히라가 왜 요시쓰네를 습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시쓰네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요시쓰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야스히라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과 요리토모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명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구칸쇼』가 전한 히라이즈미 사람들의 풍문은 요시쓰네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야스히라에게 돌리고 있는 반면, 『아즈마카가미』는 요리토모와 고시라카와인의 명령, 즉 조정과 막부의 명령을 강조함으로써 야스히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시라카와인의 명령과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키워드는 『기케이키』에도 보이며 작품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아즈마카가미』 인용문②는 요시쓰네 죽음 이후 후일담, 즉 잘린 목의 진위를 확인하는 구비짓젠(首実検)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용문②에 따

14) 龍肅(1997), p.197

르면 6월 13일 요시쓰네의 수급 확인이 가마쿠라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고시고에(腰越)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고시고에는 화장터가 있던 곳으로 가마쿠라 경계, 즉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전에 겐페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요시쓰네가 요리토모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지만 결국 가마쿠라 입성을 하지 못한 채 교토로 되돌아간 곳이기도 하다. 죽은 자의 목을 확인하는 것은 길어야 사후 1주일 이내로, 1주일이 지나면 부패가 심해 확인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윤 4월 말 즉 한여름인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요시쓰네 목의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사망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수급 확인은 그 자체가 생존설 형성에 좋은 구실로 작용했다.

이상, 동시대 사료를 통해 요시쓰네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았다. 책에 따라 서술의 분량과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요시쓰네가 히라이즈미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구칸쇼』 『교쿠요』 『하쿠렌쇼』를 통해 요시쓰네 사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이미 교토 귀족들은 그의 죽음을 객관적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즈마카가미』의 경우 요시쓰네 최후 관련 분량이 많으며, 모종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일가족 집단자살, 구비깃켄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아즈마카가미』의 서술은 『기케이키』 속 최후 장면과 겹쳐지는 요소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모든 호간모노의 토대가 되는 작품 『기케이키』를 중심으로 중세 요시쓰네 최후 서사의 확장성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Ⅲ. 요시쓰네의 할복 - 『기케이키(義経記)』를 중심으로

『기케이키』는 유년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시쓰네 일생을 그린 일대기로 요시쓰네 관련 주요 이야기들이 망라되어 있는 요시쓰네 관련 문헌들의 최대공약수적인 존재이다. 허구가 많이 섞여 있지만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요시쓰네 인물 수용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찰해야 할 주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요시쓰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 즉 겐페이 전투에 대한 언급은 몇 줄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투에서의 활약상보다 유년시절의 고난과 무예습득 과정, 형과의 불화로 인한 고난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헤이케모노가타리』와는 결이 다른 요시쓰네 인물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권 이후 후반부의 경우 우유부단하고, 실수와 오판 때문에 곤경을 자초하는 패기 없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요시쓰네가 고난에 처한 귀족으로 무력화되는 만큼 그를 둘러싼 벤케이(弁慶)를 비롯한 일당백 부하들의 활약, 시즈카(静)와의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정애(情愛)가 부각되며 비극성은 고조된다.¹⁵⁾ 그런데 마지막 장면, 즉 최후에 관한 서사에서는 이와 같은 후반부의 귀족화된 유약한 인물조형에서 벗어나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결단하는 무사적인 면모가 강조되는데, 그 결정적인 행동이 바로 할복이다.

우선 할복이라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앞서 살펴본 『구칸쇼』, 『교쿠요』, 『하쿠렌쇼』의 인용에는 할복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들 사료는 요시쓰네의 죽음에 대해 ‘討つ, 誅滅, 追討’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토벌하는 주체를 중심에 둔 표현으로 이 경우 요시쓰네는 토벌 대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즉 요시쓰네의 죽음은 토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할복의 경우 모든 자살이 그렇듯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아즈마카가미』의 경우 일가자살이라는 형태로 요시쓰네 죽음을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害) 자신도 죽었다(自殺)는 표현에서 요시쓰네의 선택이 강조된다. 『기케이키』의 경우 『아즈마카가미』의 자살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 나아가

15) 上山育代, 「『義経記』にみる義経伝説の魅力」, 『国文研究』32, 熊本女子大学国文談話会, 1986, p.15

할복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할복은 단순한 자살, 자결의 의미를 넘어 일본 고유의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 할복이라는 상징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요시쓰네 최후 장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자.

차례차례 전해지는 부하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요시쓰네는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마침내 자살을 결심한다. 자살에 앞서 요시쓰네는 가공의 인물 가네후사(兼房)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自害の刻限になりたるやらん、自害はいか様にしてよきぞ」と宣へば、「佐藤兵衛が京にて仕りて候ひしをこそ、人々後の世まで褒め候ひしか」と申しければ、「されは子細なし。疵の口の広きがよきござんなれ。」¹⁶⁾

“자결할 시각이 된 것 같구나. 자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교토에서 사토 병위가 했던 자결을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칭찬하였습니다.”

가네후사가 답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구나. 상처가 큰 것이 좋다는 말이지.”

할복에 앞서 어떻게 할복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장면이다. 인용문에 보이는 사토 병위는 사토 다다노부(佐藤忠信)를 이르며 요시쓰네 사천왕 중 한 명이다. 요시노(吉野) 산에서 요시쓰네가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요시쓰네 행세를 하며 적을 속이고 전투한 인물로 유명하다. 요시쓰네와 합류하기 위해 교토로 잠입했다가 발각되어 부상을 당하자 할복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다다노부의 할복을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표현과 할복의 ‘상처가 큰 것이 좋다’는 표현이다. 이들의 대화에서 할복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사의 명성, 명예를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할복에 명예를 연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할복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소문을 전파

16) 梶原正昭 校注, 『義経記』, 小学館, 2000, p.460

하는 제3의 인물의 존재이다. 즉 할복은 칼로 배를 가르는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고 증언하고 제3의 인물에 의해 완성되는 독특한 죽음의 양식이다.

「江馬小四郎殿へ申すべき事は、伊豆、駿河の若党の、殊の外に狼藉に見え候ふを、万事を鎮めて剛の者の腹切る様をご覧せよ。東国の方にも主に志あり、樁事中天にも会い、また敵に首を取られじとて、自害せんずる者の為に、これこそ末代の手本よ。鎌倉殿にも、自害の様をも、最期の言葉も見参に入れて給ひ候へ。」¹⁷⁾

(“에마노 고시로 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소. 이즈, 스루가의 젊은 무사들이 의외로 난폭해 보이는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용맹한 무사가 할복하는 모습을 보시오. 동국에서 주군에게 충성심을 품었고 예상치 못한 재난에도 부딪혔소. 적에게 목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를 위한, 그 야말로 후대에까지 모범이 될 거요. 요리토모 님께도 내가 자결하는 모습을 마지막 말과 함께 전해 주시오.”)

인용은 할복에 앞서 한 다다노부의 발언이다. 이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할복은 증인들의 목격담, 소문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적장인 에마노 고시로 이하 적군들은 다다노부의 할복을 가마쿠라로 전달하는 증인이 되었으며, 이를 전해들은 요리토모 역시 다다노부의 죽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케이키』 속 요시쓰네의 할복은 다다노부 할복의 복사판에 해당한다. 다다노부의 경우, 십자베기를 한 뒤 내장을 꺼내 쏟아내고 자신이 할복에 사용했던 단도를 배 안에 밀어 넣고 죽음을 위해 입에 긴 칼을 물고 앞으로 고꾸라져 죽음을 맞이한다. 요시쓰네 역시 다다노부와 마찬가지로 십자베기한 뒤 창자를 쏟아내어 죽음을 기다린다. 주지하듯

17) 梶原正昭(2000), p.306

이 할복만으로는 죽음에 이르기 어렵다. 배를 가른 뒤 죽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경동맥이나 명치를 찌르거나, 다다노부처럼 입에 칼을 물고 고꾸라지거나, 또는 뒤에서 목을 쳐주는 등의 또 다른 동작이 필요하다. 뒤에서 목을 쳐주는 가이사쿠닌(介錯人)을 이용한 할복은 남북조 이후 유행했다. 요시쓰네의 경우 자신이 있는 곳에 불을 질러 죽음을 맞이했다. 『기케이키』속 요시쓰네의 마지막 대사는 “어서 빨리 불을 질러라. 적들이 다가온다”이다. 즉 작품속 요시쓰네의 직접적인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이며, 할복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케이키』는 다다노부와 요시쓰네의 할복을 지극히 명예롭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요시쓰네가 활동했던 헤이안 말, 중세 초 당시 할복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무사의 명예와 직결되는 행위도 아니었다. 실제로 요시쓰네가 활약했던 겐페이 전투를 소재로 한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경우 수많은 장수들의 죽음을 그리고 있지만 할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¹⁸⁾ 요시쓰네 당시 할복은 관동지방 무사의 풍습으로 관서 무사의 할복 사례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다.¹⁹⁾ 이처럼 할복이 일반화된 것은 조큐의 난(承久の亂) 이후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14세기 남북조 이후이다.²⁰⁾

18)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보이는 할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오에 도나리(大江遠成), 미나모토노 요리마사(源頼政), 교노 다키구치(競瀧口), 에치고노추다이 이에미쓰(越後中太家光), 미나모토노 요시노리(源義憲), 다이랴노 다메노리(平為教). 이들의 경우 배를 갈라 죽었다는 표현이 보이지만 내장을 꺼내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오에 도나리의 경우, 특히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전해달라는 표현이나 집에 불을 질렀다는 면에서 요시쓰네의 죽음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19) 지바 도쿠지(千葉徳爾)에 따르면 할복은 목축, 수렵을 주로 했던 동일본의 풍습으로 겐지 출신, 혹은 관동지방 거주 무사들 중에 할복의 예가 간혹 보이지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행위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사라지고 관서지방 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日本人はなぜ切腹するのか』, 東京堂出版, 1994, pp.157-161

20) 모리스·판게(2011), p.222

호조 나카도키(北条仲時) 이하 430여명이 렌게지(蓮華寺)에서 벌인 집단 할복, 호조 다카도키(北条高時) 이하 870여명이 도쇼지(東勝寺)에서 벌인 집단 할복이 상징하듯 남북조 이후 할복은 너무나 난무한 나머지 무사들의 일반적인 평범한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즉 인용에 보이는 요시쓰네의 할복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기케이키』가 만들어질 당시 무사들에 대한 통념,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케이키』는 요시쓰네의 할복 못지않게 부인과 아이들의 죽음 또한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분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요시쓰네의 할복보다 오히려 가족들의 죽음에 관한 서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가 동반자살이라는 설정은 앞서 『아즈마카가미』의 기록에 보이는 표현, 즉 요시쓰네가 부인과 딸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표현과 맥이 닿는다. 다만 『기케이키』의 경우 일가의 죽음을 완성시킨 사람은 요시쓰네 자신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 가네후사이다. 가네후사는 요시쓰네 부인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늙은 무사로 요시쓰네의 부인과 아들, 딸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죽인다. 이 과정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부인의 결연한 모습과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데리고 가 달라는 어린 아들의 순진한 모습이 강조되어 일가동반자살의 비극미는 절정에 달하게 된다. 요시쓰네 일가의 동반 자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남은 자식들이 고군분투해야 하는 비극의 재생산을 막는다.²¹⁾ 요시쓰네는 할복 이후 상당시간 생존하여 부인과 자식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가네후사에게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다.

요시쓰네 일가의 결연한 죽음은 할복과 동반자살이라는 소재를 통해 무사, 무사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요시쓰네의 할복, 즉 자살은 당연한 행위인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왜 요시쓰네는 자

21) 安松拓真(2015), p.15

살을 선택한 것일까, 전투에 패한 경우 무조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인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지와라노 모토나리(藤原基成)는 요시쓰네에게 몰래 하인을 보내 야스히라 습격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며 도망칠 것을 당부하는데 다음은 이에 대한 요시쓰네의 답장이다.

「御文悦び入り候。仰せの如く、何方へも落ち行くべきにて候へども、勅勘の身として空を飛び地の底を潜り候ふとも、日本国中には叶ひ難し。此処にて自害の用意を仕るべく候。さればとて、矢をも一つ放つべきにても候はず。この御恩今生にては空しくなり候ひぬ。来生にては必ず一仏浄土の縁となり奉り候ふべし」²²⁾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든 도망쳐야 하겠지만 역적인 된 몸으로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간들 일본에서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결을 준비하겠습니다. 화살 한 번 쏘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세에는 꼭 극락정토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용에서 요시쓰네는 도망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전의 의지도 없고 나아가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도망치라는 모토나리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요시쓰네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다. 텍스트 안에서 자살은 선언되고 착실하게 이행된다. 인용에는 요시쓰네가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역적(勅勘の身)’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아즈마카가미』 첫 번째 인용문에서도 지적되었던 고시라카와인의 ‘어명’이 내려진 이상 요시쓰네는 숨을 곳도 없으며 전투를 벌이는 것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요시쓰네의 자살 선언은 천황가의 수장인 고시라카와인의 명령에 대한 존중이자 왕권에 대한 인정이라

22) 梶原正昭(2000), p.447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망이나 항전 대신 선택한 자살은 ‘할복’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통해 요시쓰네의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품 속에 구현되었다. 왕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어명을 받은 군사를 향해 화살조차 쏠 수 없다면 요시쓰네에게 남은 선택은 자살밖에 없다. 아무리 영웅적인 모습으로 할복하는 요시쓰네의 모습을 그린다고 해도 왕권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 요시쓰네가 왕명이 미치지 않는 곳, 혹은 외국으로 도망쳐 존명을 피한 생존설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IV. 요시쓰네 생존설과 이국(異國) - 에조치(蝦夷地)에서 대륙으로

앞서 중세 사료와 호간모노의 원천인 『기케이키』를 중심으로 요시쓰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 살펴보았다. 죽음을 어떤 각도에서 서술할 것인가에 차이는 있지만 요시쓰네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자료들의 기본 뼈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해설의 경우 히라이즈미에서의 죽음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도해설에서 요시쓰네는 야스히라의 습격을 피해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심지어 그 땅을 지배하는 왕, 또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존경을 받는다. 물론 비극적인 최후를 거둔 인물이 죽음을 피하여 새로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창작의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단노우라 전투에서 집단 자살한 안토쿠 천황과 헤이케 무장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가부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일 것이

다.²³⁾ 그런가 하면 활의 명수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의 경우처럼 전투에서 패한 무장이 일본 영토 밖으로 도망가 다른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 또한 존재한다. 다메토모는 호겐(保元) 난에 실패한 뒤 이즈(伊豆)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전설상으로는 오키나와로 건너가 초대 류큐(琉球) 국왕 순텐(舜天)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근세라는 시대에 접어들면 요시쓰네도 앞서 살펴본 중세의 비극적인 영웅²⁴⁾과는 거리가 먼 입지전적인 인물로 재해석, 재창조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고로모가와 전투에서의 생존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 문학 작품의 경우 요시쓰네가 생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생존설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요시쓰네의 생존에 대한 근세인들의 집요한 관심은 국학자들의 합리적 의심을 통해 확산되었다. 우선 근세 요시쓰네 생존설을 전하는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생존설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자.

① 『속본조통감(統本朝通鑑)』 79권

俗伝に又曰ふ。衣河の役ににて義経死なず。逃げて蝦夷の島に至る。其の貴種存す²⁵⁾

(속전에 말하기를 고로모가와 전투에서 요시쓰네는 죽지 않고 도망쳐서 에조노시마에 갔다고 한다. 그 자손이 남아있다.)

23) 『헤이케노고노시마』은 안토쿠 천황과 도모모리가 겐지의 눈을 피해 생존, 훗날을 위해 잠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24) 『기케이키』의 경우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강조되는 것은 겐지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혈통, 그럼에도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다. 요시쓰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해결함에 있어 부하들의 노력이 강조되는 만큼 요시쓰네는 겐지 장군의 이미지에서 멀어지고 귀족적인 취향으로 형해화된다.

25) 菊池勇夫(1982), p. 87, 재인용

② 『대일본사(大日本史)』 187권

己未より辛丑に至るまで、相距ること四十三日。天時に暑熱なり。函して酒に浸したりと雖も、焉ぞ壞爛腐敗せざることを得。孰能く其の真偽を弁ぜんや。然らば則ち義経は偽り死して遁れ去りしか。今に至るまで夷人義経を崇拜し、祀りて之を神と為す。蓋し或は其の故あらん。²⁶⁾

(기미에서 신축에 이르기까지 43일의 시간. 날씨는 무더웠다. 술에 담가 봉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 진위를 잘 규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요시쓰네는 거짓으로 죽은 척하고 도망쳤을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랑캐는 요시쓰네를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어 모신다. 필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이다.)

③ 『독리여론(讀史余論)』

世に伝ふ。此時義経死なずと。思ふに忠衡がもとののがれしなるべし。かつ義経已に自殺して館に火をはなちしともいふ歟。泰衡が獻ぜし首真なるにはあらじ。泰衡も始は義経すでに死しぬとおもひしに、其首を得ざれば、似たるものゝ首きりて酒にひたし、日数歴てのちに鎌倉に送れるにや。かくて忠衡が義経を助けて奔らしめしをきゝて討しなるべし。頼朝も疑ふ所ありしかば、しきりに泰衡を討つべしと望申せし歟。世に伝ふる事のごとくならんには、忠衡が討たれしも、義経の討たれしより百日に近し。忠衡すでに討たれし上は義経の死ちかきにある事、智者を待たずして明らか也。義経手を束ねて死に就くべき人にあらず。不審の事なり。今も蝦夷の地に義経の家の跡あり。又夷人飲食に必ずまつる。そのいはゆるオキクルミといふは即ち義経の事にて、義経のちには奥へゆきしなばといひ伝へしともいふ也。²⁷⁾

(세상에 이르기를 요시쓰네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 생각하건데, 다다히라에게 도망쳤을 것이다. 또한 요시쓰네가 이미 자살하여 저택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야스히라가 바친 목은 진짜가 아니다. 야스히라도 처음에는 요시쓰네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목을 손에 넣지 못하니 비슷한 목을 베어 술에 담가 시간이 흐른 후에 가마쿠라에 보냈을 것이다. 다다

26) 原田信男, 『義経伝説と為朝伝説』, 岩波書店, 2017, p.107, 재인용.

27) 原田信男(2017), p.108, 재인용.

히라가 요시쓰네를 도와주기 위해 뛰어다니는 소식을 들었기에 가마쿠라는 다다히라를 토벌하였을 것이다. 요리토모도 의심쩍은 점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야스히라를 토벌해야 한다고 조정에 주장했던 것일까. 세상에 전해지는 바대로라면 다다히라 사망 후 요시쓰네가 죽기까지 백일에 가까운 시간이 존재한다. 이미 다다히라가 토벌된 이상 요시쓰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라도 볼 보듯 뻔하다. 요시쓰네가 속수무책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의심스럽다. 지금도 에조치에는 요시쓰네의 집터가 남아 있다. 또한 에조치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반드시 기리는 소위 오키쿠루미는 요시쓰네이다. 요시쓰네는 나중에 안쪽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한다.)

①은 요시쓰네 에조치 도해설의 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속본조통감』이다. 생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적어도 요시쓰네 생존설이 1670년에 편집된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널리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번과 ③번 인용의 경우 생존설의 근거와 생존 이후 행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두 인용문은 현지인들이 요시쓰네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③번 인용문은 요시쓰네를 아이누의 신 오키쿠루미²⁸⁾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 인용한 세 텍스트 모두 본문에는 요시쓰네가 자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살을 서술하면서 동시에 속설, 혹은 주(割注) 형태로 도해설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NHK대하드라마 《요시쓰네》처럼 자살설과 생존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인용문은 모두 에조, 즉 홋카이도에서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홋카이도는 근세 마쓰마에(松前) 번으로 이제 막 일본 영토로 편입된 곳

28) 오키쿠루미는 아이누 신으로 하늘에서 인간계로 내려와 인간에게 농경과 사냥, 물고기 잡는 법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여겨진다.

이지만²⁹⁾ 아직까지 외지적 성격이 강한 곳으로 이민족 아이누인들이 살고 있는 오랑캐의 땅이다. 왜 요시쓰네 생존설은 일본의 경계에 해당하는 에조치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홋카이도와 요시쓰네의 접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요시쓰네와 홋카이도의 접점은 중세 말 오토기조시(お伽草子) 『온조시시마와타리(御曹司島渡)』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서 요시쓰네는 에조가시마(蝦夷が島)를 거쳐 치시마(千島)로 건너가 그곳에서 병법서(大日の法)를 손에 넣고 본토로 되돌아온다. 오토기조시 속 요시쓰네는 아직 겐페이 전투를 치르기 전의 청년으로 병법서를 손에 넣은 뒤 일본을 평정하여 겐지의 세상을 열었다고 한다. 고로모가와 전투 이전의 요시쓰네가 주인공이며 병법서를 얻은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온조시시마와타리』 속 에조는 일본 영토의 일부인 홋카이도가 아니라 이계(異界)에 해당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요시쓰네가 치시마(千島)로 향하는 도중 들린 섬들의 특징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상반신은 말이고 하반신은 인간인 반인반수가 사는 마인국(馬人国), 섬 주민이 모두 벌거벗은 섬(はだか島), 섬 주민이 모두 여성인 섬(女護の島), 소인국(小き子島), 지옥의 옥졸인 우두(牛頭), 마두(馬頭), 아방나찰(阿防羅刹)이 있는 에조가시마(蝦夷が島), 그리고 도깨비대왕(鬼の大王)이 사는 치시마 기켄 성(喜見城)은 현실에 존재하는 섬이 아닌 상징성 가득한 이계이다.

大王の出でさせ給ふ姿を見給ふに、五色をひやうし出で立ちて、十六丈の

29) 근세 도쿠가와 막부는 막번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홋카이도를 마쓰마에 번에 편입, 관리하였다. 근세 초기에는 홋카이도 남서부, 오시마(渡島) 반도의 와진치(和人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아이누인들이 사는 에조치였다. 마쓰마에 번의 재정은 아이누와의 교역 독점을 통해 충당되었다.

せいにて、手足は八つ、角は三十ありて、呼ばはる声は百里が間も響きわたる也。³⁰⁾

(대왕의 모습을 보니, 오색찬란한 빛이 나고 16장 키에 손발은 8개, 뿔은 30개 나 있었으며 말을 하는 목소리는 백리나 울려 퍼졌다.)

요시쓰네가 들렸던 섬들의 주민은 물론 인용에 보이는 도깨비대왕 역시 인간계와는 동떨어진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걸리며 여행기에 등장하는 신기한 나라처럼 텍스트에 등장하는 섬들 역시 신비한 곳으로 궁극의 병법서³¹⁾가 존재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홋카이도의 이계성과 더불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시쓰네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도구로 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출귀몰하며 기습을 통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무사로서의 요시쓰네가 아니라, 피리를 불어 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시키는 귀공자, 문화인 요시쓰네로 그려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 초에 쓰인 아이누 관련서 『도도필기(渡島筆記)』³²⁾에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도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었는데, 호간에게 그 책을 빼앗긴 이후 글 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조시시마와타리』에 나오는 병법서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누인들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요시쓰네는 그들의 문화를 빼앗은 가해자로 등장한다. 피리라는 선진 문화를 통해 섬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온조시시마와타리』, 병법서를 통해 읽고쓰기 능력을 빼앗겼다는 『도도필기』는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요시쓰네와 문화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30) 市古貞次 校注, 『お伽草子(上)』, 岩波書店, 2020, p.117.

31) 『온조시시마와타리』는 병법서를 손에 넣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케이키』의 기이치(鬼-) 법안의 소장품 『육도(六韜)』를 손에 넣는 이야기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32) 1808년 막부의 명령에 따라 여러 번 에조치 조사를 다녀왔던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에 의해 만들어진 책으로 아이누의 풍습, 습관, 기담 등 아이누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온조시시마와타리』의 경우 도해의 목적이 도깨비대왕이 가지고 있는 병법서 획득에 있다는 점에서 근세 유행했던 에조치 도해설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근세 유행한 에조치 도해설의 중심은 아이누인과의 관계성에 있다. 즉 몰래 도망쳐서 일본 어딘가에 숨어 지내며 자손을 남겼다고 하는 낙인(落人) 설화 유형에서 벗어나 이민족 아이누의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요시쓰네 에조치 도해설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존재했다. 도해설의 초출인 『속본조통감』은 간분(寬文) 10년(1670)에 완성되었는데, 이 시기 홋카이도는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특히 1669년부터 불리한 교역을 강요하는 마쓰마에 번에 대항하여 아이누인들이 봉기하는, 소위 샤크샤인 전투가 일어났다. 기쿠치 이사오(菊池勇夫)는 일본인과 아이누인들의 마찰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중앙에 유입되는 과정에 요시쓰네 도해설이 중앙에도 유입되었을 것이라 지적한다.³³⁾ 겐로쿠(元祿)에서 교호(享保) 연간에 에조치 도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³⁴⁾ 이때 중앙에서 언설화된 요시쓰네 전설은 홋카이도로 역수입되면서 요시쓰네 관련 유적과 전설이 대거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간세이(寬政) 연간(1789-1801)에 러시아 흑선이 남하하면서 막부는 본격적으로 에조치 경영에 돌입하며 곤도 주조(近藤重藏)를 비롯한 180명 규모의 대규모 에조치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곤도 주조는 아이누의 화풍화(和風化)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누 신을 일본 신으로 바꾸는 종교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때 아이누의 영웅 오키쿠루미, 사마이루를 요시쓰네, 벤케이와 적극적으로

33) 菊池勇夫(1982), p. 87

34) 긴다이치 교노스케(金田一京之助)는 이를 요시쓰네 입도설 제2기로 규정하고, 2기의 특징을 전국적, 민족적 성격을 지닌 요시쓰네 입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단계라고 한다(『義経入夷伝説考』「東亜之光」9-6, 1914). 이 시기에는 문예에서도 입도설이 영향을 미친다.

연결시키는 한편 요시쓰네 신사를 건립하였다.³⁵⁾ 곤도는 에조치에서의 요시쓰네 전설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홋카이도, 즉 에조치는 『온조시시마와타리』에 보이는 이계가 아니라 새롭게 편입된 일본 영토인 동시에 타민족이 살고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근세 에조치 도해설의 핵심은 고로모가와 전투 이후 요시쓰네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쓰네라는 일본인이 에조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홋카이도를 요시쓰네의 후손이 사는 땅,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아이누인들이 사는 곳으로 변질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평화 전략의 수단으로 요시쓰네 도해설이 이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세 특유의 비극적인 요시쓰네 인물조형 따위는 없다. 요시쓰네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 그곳을 지배하는 영웅이 되는데, 새 거주지는 에조치에서 중국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금나라, 청나라, 심지어 몽골로 바뀌면서 요시쓰네는 어느덧 징기스칸이 되기도 한다.³⁶⁾ 에조치 도해설로 대표되는 요시쓰네 생존설은 일본인의 호간비이키, 즉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된 언설이 아니라 근세 확장된 영토를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 국제정세 속에서 만들어지고 확산된 언설이다. 요시쓰네 에조치 도해설은 일본인들이 사랑해마지 않는 비극적인 영웅을 살리고 싶다는 막연한 동정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다. 정치적인 이용의 가장 첨예한 모습이 메이지 유신 이후 유행했던 요시쓰네 징기스칸 설이라고 할 수 있다.

35) 田中徳定, 『義経伝説と鎌倉・藤沢・茅ヶ崎』, 新典社, 2015, pp.169~171

36) 1879년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의 논문(The identity of the great conqueror Genghis Khan with the Japanese hero Yoshitsuné)은 6년 뒤 『요시쓰네부흥기(義経復興記)』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24년 오야베 겐이치로(小谷部全一郎)의 책 『징기스칸은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이다(成吉思汗は源義経成)』는 사실무근이라는 사학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V. 결론

이상, 중세와 근세 요시쓰네 최후를 둘러싼 서사의 특징을 할복과 에조치 도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치노타니(一ノ谷) 전투, 야시마(八島) 전투, 단노우라(壇ノ浦) 전투 등 겐페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 요시쓰네는 고로모가와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동시대 사료에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시쓰네 관련 전설이 중세와 근세 확장됨과 더불어 그의 최후 서사 역시 할복설, 생존설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남북조 이후 성행한 할복은 『기케이키』 요시쓰네 인물조형에 투영되어, 왕권을 존중하며 깨끗하게 무사답게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요시쓰네 인물조형을 만들어냈다. 또한 근세 마쓰마에 번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된 에조치는 고로모가와 전투 후 생존한 요시쓰네의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요시쓰네는 아이누의 신 오키쿠루미가 되기에 이르렀다. 아이누인의 일본화를 위해 요시쓰네 신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중앙에서 만들어진 요시쓰네 에조치 도해 관련 설화는 에조치에 역수입되었다. 요시쓰네와 아이누, 홋카이도의 연결은 정치적인 의도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을 대표하는 영웅 요시쓰네의 최후를 시대별로 어떻게 그렸는지, 어떻게 변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세 홋카이도의 의미를 생각하면 에조치 도해설이 단순한 가공의 이야기 이상의 무게가 있듯이, 근대화 이후 끊임없이 대륙으로 눈을 돌리던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징기스칸 설 역시 단순한 전설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이 있다. 경성일보 1937년 12월 21일 기사에 요시쓰네의 묘비가 회덕현(懷德縣) 공주령(公主嶺) 부근에서 나왔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공주령은 몽고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요시쓰네 묘비가 발견되어 관리들을 동원, 적극적으로 조사중이라는 내용이다. 요시쓰네 징기스칸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일본 사학계의 발 빠른, 그리고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³⁷⁾ 위의 기사처럼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징기스칸 설은 더욱 자주 언론에 언급되었다. 징기스칸설은 물론이고 할복설과 예조치 도해설과 같은 요시쓰네 최후 관련 서사의 확장에는 시대적, 정치적 이슈가 관여되어 있다. 요시쓰네 최후 관련 서사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사회 문화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예민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3년 11월 11일

논문 심사일 : 2023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1월 28일

37) 김시덕은 주8) 논문에서 요시쓰네 징기스칸 설에 대한 학자들의 발 빠른 부정에 대해 주목, 평가하고 있지만, 학계와는 달리 언론에서는 이를 강하게 홍보에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김시덕, 「위서 비판에서 위서 연구로—일본 위서의 검토 및 한국 위서와의 비교」, 『역사비평』 118권, 역사문제연구소, 2017.

박은희 외 역, 『구칸쇼』, 세창출판사, 2012.

安松拓真, 「『義経記』における義経の自害について」, 『面』, 8号, 東京学芸大学
中世文芸ゼミ, 2015.

市古貞次 校注, 『お伽草子(上)』, 岩波書店, 2020.

上山育代, 「『義経記』にみる義経伝説の魅力」, 『国文研究』, 32号, 熊本女子大
学国文談話会, 1986.

菊池勇夫, 「義経「蝦夷征伐」物語の生誕と機能—義経入夷伝説批判—」, 『史苑』,
42卷, 立教大学史学会, 1982.

田中徳定, 『義経伝説と鎌倉・藤沢・茅ヶ崎』, 新典社, 2015.

千葉徳爾, 『日本人はなぜ切腹するのか』, 東京堂出版, 1994.

原田信男, 『義経伝説と為朝伝説』, 岩波書店, 2017.

モリス・パンゲ, 『自死の日本史』, 講談社, 2011.

龍肅 訳註, 『吾妻鏡(二)』, 岩波書店, 1997.

渡辺保, 『源義経』, 吉川弘文館,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stories related to Yoshitsune's final days

Park Eunhe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related to Minamoto no Yoshitsune. Yoshitsune, famous as a hoganbiiki, was active as a protagonist in various literary works from the Middle Ages. His death was also described and sprea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re is no specific description about his death, but his death was expanded and transformed over time in a way appropriate for each era. For example, in the case of 『Kikeiki』, Yoshitsune's final days are decorated with hara-kiri and family suicide. Hara-kiri is a typical method of suicide among medieval warriors. It depicts Yoshitsune's honorable death by adopting shara-kiri, which was not common at the time.

The key to Yoshitsune's final days in the early modern era is that he escaped to Hokkaido and survived. He did not die in the Battle of Koromogawa, but escaped to Hokkaido and became a god respected by the Ainu. A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Hokkaido grew, the story of Yoshitsune, who was respected by the Ainu, became more widespread. As the story progressed, Yoshitsune moved to China and became Genghis Khan. It was a lie, not a fact, but Japan, which invaded Manchuria, used this fact politically. Yoshitsune's last days were recrea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Key Word

Yoshitsune, hara-kiri, Ejochi, Ainu, Genghis Khan

www.kci.go.kr